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2023, September. 11(3): 91-97
pISSN: 2288-6079 / eISSN: 2635-6538
https://doi.org/10.33615/jkohs.2023.11.3.91

치위생과 학생의 대인관계능력, 회복탄력성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유은지[1] · 이혜진[2‡]
[1]대전보건대학교 치위생과 겸임교수, [2]호원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The Effects of Dental Hygiene Students' Interpersonal Ability and Resilience on Clinical Practice Stress

Eun-Ji You[1], Hye-Jin Lee[2‡]
[1]Dept. of Dental Hygiene,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Adjunct professor
[2]Dept. of Dental Hygiene, Howon University, Professor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interpersonal ability and resilience on clinical practice stress in dental hygiene students which was experienced at clinical practice.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173 dental hygiene students. Data was collected from May 1 to 30, 2022.
Results: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practice stress showed significant relationships in practice period, grades, resilience, and practice institutions, and the explanatory power was 35.6%.
Conclusions: As a result, in order to reduce the stress of dental hygiene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factors in practice institutions that affect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counseling with psychologists and psychological reinforcement programs to improve students' resilience and interpersonal skills.

Keywords Clinical practice stress, Dental hygiene students, Interpersonal ability, Resilience

Received on Aug 09, 2023. Revised on Aug 26, 2023. Accepted on Aug 28, 2023.
‡ Corresponding Author (E-mail: qorrha12@hanmail.net)

Ⅰ. 서론

치위생교육은 치과의료현장 및 사회에서 요구하는 업무수행 능력을 갖추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지닌 구강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1]. 이러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고 능숙한 임상실무능력 및 자질을 갖춘 인재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치위생 교육과정 중 임상실습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임상실습은 대학에서 배운 치위생학의 기본적인 이론과 지식을 바탕으로 임상현장에서 실제로 수행해 보는 과정으로, 강의실교육을 보충・통합하고 현장에서 응용, 관찰, 적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2].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치위생 이론 및 기술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환자의 보건의료를 파악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며, 환자 및 의료진과 상호작용을 통해 치과위생사로서의 의무와 책임 등 직업적 가치관 형성과 구강보건 전문가로서의 역할 및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2,3]. 하지만 임상실습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사뭇 다른 병원분위기나 실습적응에서 오는 혼란 및 불안 등의 부정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어 임상실습과정에 어려움을 겪는다[4,5]. 이러한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실습생의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전공만족도 감소, 직업정체감 상실, 수행능력 감소를 가져오므로 임상실습교육의 효과를 향상시키고 역량 있는 치과위생사를 양성하기 위해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5,6].

치위생과 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보면, 대인관계, 이상과 가치의 요인, 역할 및 활동 등이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 전공만족도, 학과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7]. 개인 요소와 관련된 변수에서는 회복탄력성, 자기표현, 셀프리더십,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등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7]. 이렇듯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학생의 내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되었

Copyright ⓒ 2023 by the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KOHS).

으나[8], 대부분의 연구가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영향요인 및 만족도에 편중되어 있어 내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인관계능력은 타인의 마음과 감정을 이해하고 신뢰감, 친근감을 형성하여 사회적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한 핵심 능력으로 개인의 성장과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9].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등 다양한 직종과 협력하여 조직의 성과를 이끌어야 하며 여러 유형의 환자 및 보호자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상담, 교육 등 임상 현장 업무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치과위생사에게 대인관계능력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임상실습과 대인관계능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인관계능력과 임상실습 만족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대인관계능력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10,11]. 이렇듯 치위생과 학생에게 대인관계능력은 예비치과위생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이며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이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대인관계능력이 중요하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다양한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인 회복탄력성은 변화하는 상황에 알맞고 유연하게 반응하도록 하여 스트레스를 빠르게 회복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개인적 능력이다[12]. 회복탄력성이 낮으면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낙관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스트레스에 대처하여 극복한 후 더욱 향상된 능력을 발휘하게 하므로 스트레스 대처에 회복탄력성은 매우 중요하다[13]. 이러한 회복탄력성은 임상실습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적응도가 높다고 하였으나[14],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과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 결과는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대인관계능력 및 회복탄력성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성공적인 임상실습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자료는 2022년 5월 1일부터 30일까지 대전・충청지역 치위생과 학생 중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치위생과 학생을 편의추출하여 연구목적 설명 후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자기기입식 설문법으로 작성하였다. 표본 크기는 G*power 3.1.9.7 program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 예측변수 8개(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인관계능력, 회복탄력성, 일반적인 특성)로 하였고, 최소인원은 166명이며, 최종분석대상자는 173명이었다.

2. 연구방법

연구 도구는 일반적 특성 5문항, 임상실습 스트레스 24문항, 대인관계능력 18문항, 회복탄력성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Beck와 Srivastava[15]가 개발하고 김과 이[16]가 번안한 임상실습 스트레스 총 24문항을 사용하였으며, 하위요인은 실습교육 환경 5문항,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 모델 6문항, 실습업무 부담 4문항, 대인관계 갈등 4문항, 환자와의 갈등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대인관계능력은 Schlein[17]가 개발한 관계성 변화 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 RCS)이고, 장[18]이 사용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18개 문항으로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복탄력성은 양 등[19]이 개발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인관계능력,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Cronbach' α 는 임상실습 스트레스 0.939, 대인관계능력 0.840, 회복탄력성 0.817이다.

3.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6.0 program을 이용하였고, 유의수준은 0.05로 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백분율을 실시하였고, 변수의 점수는 산술평균을 실시하였다.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변수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시행하였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치위생과 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회귀(stepwise multiple regression)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 Reliability of instrument scales Unit: Mean±SD

Variables	Item	Min	Max	Mean±SD	Cronbach's α
Clinical practice stress	24	1.00	5.00	2.70±0.82	0.939
Interpersonal ability	18	2.25	5.00	3.87±0.60	0.840
Resilience	24	2.71	5.00	3.75±0.45	0.817

Ⅲ. 연구결과

1. 변수의 평균점수

치위생과 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2.70점이었고, 대인관계능력은 3.87점이었으며, 회복탄력성은 3.75점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정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보면, 학점(p=0.043), 실습기관 유형(p=0.002), 실습횟수(p=0.002), 실습기간(p=0.001), 전공만족도(p=0.016)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후검정 결과, 실습기관 유형은 '대학병원'에서, 실습 횟수는 '3회 이상'에서, 실습기간은 '8주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성적은 사후검정 결과에서 유의성이 없었고, 전공만족도는 '보통'에서 높게 나타났다<Table 2>.

3. 변수 간의 상관분석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대인관계능력(r=-0.409), 회복탄력성(r=-0.432)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대인관계능력과 회복탄력성(r=0.634)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4.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적 특성, 대인관계능력, 회복탄력성을 설명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Durbin-Watson 검정계수는 1.592로 기준치 10을 넘지 않아 자기상관성의 문제가 없었고 공차한계는 0.528-0.974로 나타났으며(F=20.010, p<0.001), 분산팽창인자(VIF)는 1.027-1.892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위생과 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습기간_덤1(≥4주/4주-≤8주)(β=-0.350, p<0.001), 성적-덤2(3.0-4.0/≤4.1)(β=0.208, p<0.014), 회복탄력성(β=-0.197, p<0.016), 실습기

<Table 2> Level of sca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Mean±SD

Characteristics	Division	N	Clinical practice stress	t or F(p)
Grade	≥2.9	8	2.53±0.69	3.207
	3.0-3.9	118	2.80±0.82	(0.043)
	≤4.0	47	2.46±0.81	
Practice institutions type	Dental clinic	70	2.46±0.77[a]	6.702
	Dental hospital	78	2.78±0.78[ab]	(0.002)
	Dental university hospital	25	3.09±0.89[b]	
Number of practices	1	105	2.53±0.69[a]	6.567
	2	50	2.86±0.95[ab]	(0.002)
	≤3	18	3.18±0.88[b]	
Practice period (week)	≥4	53	2.17±0.49[a]	22.101
	4-8	106	2.88±0.83[b]	(0.001)
	≤8	14	3.31±0.74[c]	
Major satisfaction	Usually	91	2.84±0.72	2.442
	Good	82	2.54±0.89	(0.016)

* By the t-test for two g≤roups and one-way ANOVA(post-test Duncan) for three
[a,b] The same character indication shows that there i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Table 3> Correlation of clinical practice stress, interpersonal ability, resilience

Variables	Clinical practice stress	Interpersonal ability	Resilience
Clinical practice stress	1		
Interpersonal ability	-0.409**	1	
Resilience	-0.432**	0.634**	1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Variables	B	S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5.484	0.438		12.534	0.001		
Grade_dummy2(3.0-4.0/≤4.1)	-0.283	0.114	-0.208	-2.473	0.014	0.528	1.892
Practice institutions type_dummy1 (dental clinic/dental hospital)	-0.316	0.103	-0.190	-3.065	0.003	0.974	1.027
Practice period(week)_dummy1 (≥4/4-≤8)	-0.621	0.112	-0.350	-5.557	0.001	0.941	1.062
Resilience	-0.361	0.148	-0.197	-2.437	0.016	0.572	1.750

R^2=0.375, adjusted R^2=0.356, F=20.010(p<0.001), Durbin-Watson: 1.592
*B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t α=0.05

관 유형_덤1(치과의원/치과병원)(β=-0.190, p<0.003)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났고, 설명력은 35.6%이었다<Table 4>.

Ⅳ. 고찰

치위생과 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2.70점이었고, 이[5]의 연구에서 2.56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치위생과 학생의 대학생활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인 강과 이[20]의 연구결과는 1.50점으로 나타나 대학생활 보다 임상실습에서 훨씬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치위생과 특성상 의료계열 학과로 임상실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와 실습적응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스트레스 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상실습은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임상실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실전교육과 학생들이 임상실습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단순히 학점과 연계된 임상실습이 아니라 예비치과위생사로서 전문지식을 향상시키고,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간접적으로 경험해보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효율적인 임상실습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실습기관 유형이 '대학병원'일 때, 실습 횟수는 '3회 이상'에서, 실습기간은 '8주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고, 전공만족도는 '보통'에서 높게 나타났다.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류[21]의 연구에서 임상실습 기관에 따른 스트레스가 '치과대학병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같았다. 이는 임상실습이 이루어지는 기관이 치과의원, 치과병원, 대학병원, 군병원 등 다양하기 때문에 기관의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가 나타남을 보여주는 결과로 보인다. 대학병원은 치과병·의원보다 엄격한 규정 및 실습환경이 적용되고, 실습생이 각 진료과목을 모두 실습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로테이션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각 과마다 실습담당자가 변경되는 환경이 만들어져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향상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실습기관, 실습 횟수, 실습기간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비하여 본 연구결과를 비교분석하기 어려웠으므로, 임상실습과정에 따른 하위요인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영향에 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치위생과 학생의 회복탄력성은 3.75점으로 나타났고, 이[5]의 연구에서 3.64점, 오[22]의 연구에서 3.43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감정노동, 임상실습 스트레스, 공감능력 등의 변수로 연구가 진행되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5,22]. 이[5]의 연구에서 감정노동과 회복탄력성이 음의 상관관계라 하였고, 오[22]의

연구에서 회복탄력성과 공감능력이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대체로 심리적인 요인들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치위생과 학생의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학교 내 비교과 과정을 통한 심리강화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치위생과 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은 3.87점으로 나타났고, 유 등[10]의 연구에서 3.98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치과위생사는 개인의 업무뿐만 아니라 의사, 환자, 치과 전문 직업군 등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이루며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대인관계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는 같은 보건계열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 등[23]의 연구에서 동료관계가 서로 좋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다는 연구결과로 나타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업군에게 대인관계능력이 중요하며, 대인관계능력이 좋을수록 업무능력도 좋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교내 임상관련 실습교육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면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대인관계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수-학생 개인지도가 필요하며 수업방식에서도 PBL이나 그룹프로젝트 등을 적용하고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집단상담프로그램이나 멘토링을 활용하여 대인관계능력을 향상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r=-0.409), 회복탄력성(r=-0.432)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유와 민[11]의 연구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대인관계능력이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이[5]의 연구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이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동일하였다.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처능력을 말하므로[12],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빠르게 대처하고 해결하여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다. 대인관계능력이 높으면 타인과의 친밀감이 성공적으로 형성되어 임상실습을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인관계와 회복탄력성 향상에 필요한 의사소통, 공감능력과 같은 정서적 지능을 높여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치위생과 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습기간(β=-0.350, p<0.001), 성적(β=0.208, p<0.014), 회복탄력성(β=-0.197, p<0.016), 실습기관 유형(β=-0.190, p<0.003)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났고, 설명력은 35.6%이었다. 같은 의료계열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과 이[24]의 연구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회복탄력성이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임상실습 전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이루어졌지만[5,11,21], 치위생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실습기관, 회복탄력성에 관한 선행연구가 전무하여 비교분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하지만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대인관계능력, 회복탄력성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습의 하위요인을 보완한 추가연구가 필요하고, 선행연구 결과에 따른 영향요인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효과적인 임상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 커리큘럼 개선 및 임상실습 관련 실전 교육이 필요하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대인관계능력 및 회복탄력성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성공적인 임상실습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1. 치위생과 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2.70점이었고, 대인관계능력은 3.87점이었으며, 회복탄력성은 3.75점으로 나타났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정도를 보면, 학점(p=0.043), 실습기관유형 (p=0.002), 실습횟수(p=0.002), 실습기간(p=0.001), 전공만족도(p=0.016)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대인관계능력(r=-0.409), 회복탄력성(r=-0.432)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대인관계능력과 회복탄력성(r=0.634)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4. 치위생과 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습기간_덤1(≥4주/4주-≤8주)(β=-0.350, p<0.001), 성적_덤2(3.0-4.0/≤4.1)(β=0.208, p<0.014), 회복탄력성(β=-0.197, p<0.016), 실습기관 유형_덤1(치과의원/치과병원)(β=-0.190, p<0.003)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났고, 설명력은 35.6%이었다.

이상의 결과, 치위생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실습기관 내 요인을 파악하여 실습기관과의 상호협조를 통한 매뉴얼 개선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회복탄력성과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심리전문가와의 상담 및 심리강화프로그램이 지속되어야 한다.

REFERENCES

1. Lee SM, Kim SC, Han SJ: A study of work values on the students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5(4):239-244, 2005.
2. Brown AF: Curriculum Development. WB Saunder Co.Philladelthia, pp.380, 1960.
3. Yoo JH, Kim JH: A study on the satisfaction and stress factors of clinical practice for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6(1):62-69, 2016. DOI: 10.17135/jdhs.2016.16.1.62
4. You EJ, Ji MK, Min HH: Influencing factors of college student burnout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11(1):67-73, 2023. DOI: 10.33615/jkohs.2023.11.1.55
5. Lee MR: The convergence relationship on emotional labor, resilience,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1(2):173-180, 2021. DOI: 10.22156/CS4SMB.2021.11.02.173
6. Choi JH: Convergence relationship study o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professional identity in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1):79-85, 2019. DOI: 10.15207/JKCS.2019.10.1.079
7. Lim SR, Yang, JA: A systematic review on the stress of clinical dental practice for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1(9):191-200, 2021. DOI: 10.22156/CS4SMB.2021.11.09.191
8. Im YS, Kim JH, Kwon HJ: Relationships among bullying in workplace,burnout,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Korean physician assistant nurse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2):707-713, 2016. DOI: 10.5392/JKCA.2016.16.02.703
9. Lee SL: Convergence relationship of self-esteem, empathy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7):87-92, 2019. DOI: 10.15207/JKCS.2019.10.7.087
10. You EJ, Choi MH, Kim YS: The effects of dental hygiene students' problem solving ability and interpersonal ability 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11(2):43-49, 2023. DOI: 10.33615/jkohs.2023.11.2.43
11. You EJ, Min HH: Relevance of dental hygiene to student empathy, interpersonal skills,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47(1):9-14, 2023. DOI: 10.11149/jkaoh.2023.47.1.9
12. McAllister M, McKinnon J: The importance of teaching and learning resilience in the health disciplines: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29(4):371-379, 2009.
13. Gillespie B.M., Chaboyer W, Wallis M, Grimbeek P: Resilience in the operating room: developing and testing of a resilience model. Journal of Advanced Nursing 59(4):427-438, 2007. DOI: 10.1111/j.1365-2648.2007.04340.x.
14. Baek KH, Cho MO: Effect of grit and resilience on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6):363-371, 2020. DOI: 10.14400/JDC.2020.18.6.363
15. Beck DL, Srivastava R: Perceived level and sources of stres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0(3):127-133, 1991. DOI: 10.3928/0148-4834-19910301-08.
16. Lee JE, Kim SL: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1(1):98-106, 2005.
17. Schlein SB, Guerney, L Stover: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al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71.
18. Chang HS: The association between self-esteem, relationship style, and etiquette implementation in adolescence.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2006.
19. Yang YH, Kim EM, Yu M, Park SM, Lee HY: Development of the resilience scale for korean nursi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7(3):337-346, 2015. DOI: 10.7475/kjan.2015.27.3.337

20. Kang YJ, Lee JY: Factors influencing on life stress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1(1):352-362, 2021.
DOI: 10.5392/JKCA.2021.21.01.352
21. Ryu HG: Relevan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stress and its physical environmental and interpersonal factors in clinical practice institution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9(5):791-802, 2019.
DOI: 10.13065/jksdh.20190067
22. Oh HN: The effects of empathic ability on resilience in dental hygiene students. The Effects of Empathic Ability on Resilience in Dental Hygiene Students 16(6):305-313, 2022.
DOI: 10.21184/jkeia.2022.8.16.6.305
23. Park MN, Oh EJ, Lee HR: The impact of nursing students' self-directedness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n their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3(7):93-102, 2022.
DOI: 10.5762/KAIS.2022.23.7.93
24. Jeong YH, Lee KH: Effect of verbal abuse experience, coping style and resilience on emotional response and stress during clinical practicu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3):391-399, 2016.
DOI: 10.14400/JDC.2016.14.3.391